

[QT 세미나]

'그 한 사람을 만나다'

이상규 목사 / 1999 / 페이지수: 2

'a man'. 영어단어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다. 큐티 본문에 여호수아 5장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 가던 길목에서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었다(수 5:13~15).

그 때가 '96년 11월이었으니 연말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던 때였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공감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래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애굽의 모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의 광야 시험을 거쳐 드디어 들어선 이 위대한 땅으로 걸음을 옮겨가는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이 어느새 나이 40이 된 초조함이 더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순간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여 제게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한 사람(a man)’을 만나게 해 주소서. 내년도 나의 가나안 정복전쟁 전체를 과연 누가 주도하는지 선명히 일깨워 주는 한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케 하여 거룩한 땅을 디디고 깊은 경배를 체험케 해 줄 그런 ‘한사람(a man)’을 만나게 해 주소서”

깊은 경배

여기쯤 기도하다가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 단 ‘한 사람’을 ‘언제’ 만나게 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겠는가. 주님으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듯싶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오늘’이었다. “주여,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소서!”

기도를 마치자 즉각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바로 ‘오늘’ 내 생애에서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시켜 줄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설레 이는 마음으로 오전을 지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내 주위에는 그런 ‘한 사람’이 없었다. 점심시간이었다. 동료들과 식사하는 중 마주 앉아 있는 한 분이 최근 미국교회를 돌아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흥미롭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이 대화 중 그가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졌다. “그 교회들을 죽 돌아보는 중에 특별히 이 목사님이 만나 보면 딱 좋을 목회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 내 속에서 탄성이 나왔다. 이제 보니 내가 찾고 있던 그 ‘한 사람(a man)’이 미국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왜?

미국으로 갔다. 17박 18일의 예배갱신 세미나를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미국행 목적

은 오직 여호수아 5장의 그 ‘한 사람(a man)’을 찾는 것이었다. 여전히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루는 큐티 중에 주께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셨다. ‘아니 왜’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셨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했다. 미국교회를 연구하는데 온 마음이 쏠려 정작 주일이 되어도 예배보다는 관찰하고 사진 찍고 자료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았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오늘만큼은 일절 사진도 찍지 않고 예배만 전념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미국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여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인도자를 따라 찬송을 불렀다. 그 ‘한 사람(a man)’을 찾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렸다. 오직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인도자는 주의 위엄을 높이는 찬양들로 회중을 이끌고 있었다.

“This is holy ground. We're standing on holy ground, For the Lord is present and He is holy...”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러 가려 할 때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랫배 창자 부위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 싶더니 벽찬 울음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리고 나의 온 주변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 여기였구나! 여기 바로 내가 찾던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은 다른 아닌 ‘더 쳐치 온 더 웨이’(The Church on the Way)의 잭 해리포드였다.

* 출처: QT신문